

기획조사 06-042

#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 GAFTA (범아랍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기획조사 06-042

---

##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 GAFTA (범아랍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

---

**kotra**

## 목 차

1. 조사의 범위와 방향 .....	1
2. 아랍 국가들의 경제 및 국제 경제질서의 참여 개황 .....	3
3. '아랍 통합'과 '경제 통합' .....	6
4. 범 아랍자유무역지대 (GAFTA) 태동과 주요 내용 .....	11
5. GAFTA 발효 1년 후 주요국의 교역관계 변화 분석 .....	16
6. GAFTA 발효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24
7.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책 .....	28

# 1. 조사의 범위와 방향

## 가. '아랍'의 지역 개념

- '아랍'의 사전적 의미<sup>1)</sup>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으로서 아랍어를 쓰며 이슬람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여러 민족”을 일컫음.
- 그러나, 아랍 사회역사 분야의 거장인 라피두스 교수 (Ira M. Rapidus)<sup>2)</sup>에 따르면, '아랍'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종교적 정체성, 민족주의 등과 연계된 매우 복잡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단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어려움.
  - 부족국가 시대에는 국가적 정체성 확보 및 지배세력의 권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슬람' 과 '아랍 주의'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나,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보다 강조됨.
  -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 식민지 시대에는, 아랍문학의 부흥과 이슬람의 영광 회복 등의 감정이 어우러져 '아랍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표출이 되면서 '이슬람'을 뛰어넘는 세속적 용어의 하나로 자리매김.
  -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 시대에는 식민주의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발전함.
- 이 같은 용어의 복잡성으로 '아랍'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가 않으며, 따라서 '아랍'의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유럽과 같이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룬 역사가 없음에도, 동일한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도 '아랍'에 대한 일반적인 지역 개념 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임.

1)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Cambridge Press)의 저자.

## 나. 조사의 범위와 방향

- ‘아랍’이라는 용어가 갖는 복잡한 의미를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는 ‘아랍’을 ‘아랍 연맹’<sup>3)</sup>에 가입하고 있는 22개국으로 정의함.

- 지역적으로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며, MENA (Middle East & North Africa)로 통칭함.

- 2006년 기준 ‘아랍연맹’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음.

1. 요르단	2. UAE	3. 바레인	4. 튀니지
5. 사우디아라비아	6. 수단	7. 시리아	8. 이라크
9. 오만	10. 팔레스타인	11. 카타르	12. 쿠웨이트
13. 레바논	14. 리비아	15. 이집트	16. 모로코
17. 예멘	18. 모리타니	19. 알제리	20. 소말리아
21. 지부티	22. 코모로스		

- ‘아랍연맹’에 가입한 국가들 중 본 조사의 중심이 되는 GAFTA 즉, 범아랍 자유무역지대 (Global Arab Free Trade Area)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는 17개국으로서, 상기 1-17번까지의 국가임.<sup>4)</sup>

- 따라서, 이하에서는 ‘아랍’의 개념을 아랍 연맹에 가입한 국가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이들 지역 내에서의 지역통합 동향과 함께 동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발족한 ‘GAFTA’의 발족 배경, 내용, 변화, 전망 및 영향과 대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3) 1945년 3월,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아랍국가들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지역협력 기구로서 정식명칭은 아랍 국가연맹 (League of Arab States)임. 현재 가입국가는 22개국이며 이집트 카이로에 본부를 두고 있음.

4) 알제리는 현재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가입 시 18개 회원국으로 증가 예상됨.

## 2. 아랍 국가들의 경제 및 국제 경제질서의 참여 개황

### 가. 경제 개황

-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로서, 동 아시아 국가들의 7.4%, 남 아시아 국가들의 5.5%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sup>5)</sup>

아랍 국가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알제리	-5.4	5.6	0.8	3.8	2.1	2.6	4.0	6.9	5.3	4.6
바레인	7.5	-0.9	7.3	3.9	5.3	4.5	5.1	5.7	5.5	5.3
지부티	3.4	-0.2	5.8	-3.5	0.7	1.9	2.6	3.5	3.0	3.9
이집트	3.4	7.4	2.4	4.5	5.4	3.5	3.2	3.1	4.1	4.8
요르단	16.2	6.1	7.1	6.2	4.1	4.9	4.8	3.3	6.7	5.0
쿠웨이트	-20.4	-4.3	-26.2	1.4	1.9	0.7	-0.5	9.7	7.2	3.2
레바논	1.5	24.3	-13.4	6.5	-0.5	2.0	2.0	3.0	5.0	4.0
리비아	-3.8	1.0	-20.2	0.7	2.4	2.9	3.7	5.3	0.9	4.3
모로코	3.8	6.3	4.0	-6.6	1.0	6.3	3.2	5.2	3.5	3.0
오만	6.1	14.5	8.4	4.8	5.5	7.5	1.7	1.4	2.5	3.6
카타르	-1.0	-13.0	-14.6	5.5	9.1	4.5	7.3	8.5	9.9	5.1
사우디	7.9	-4.1	10.6	0.5	4.9	0.5	0.1	7.2	5.3	4.1
시리아	12.0	6.1	2.7	7.0	0.6	3.8	4.2	2.6	3.4	3.5
튀니지	7.4	5.7	7.1	2.4	4.7	4.9	1.7	5.6	5.8	5.0
UAE	-1.8	-2.5	16.6	7.0	12.3	3.5	1.9	7.0	5.7	4.5
예멘	4.4	3.4	1.3	12.5	4.4	4.6	3.9	3.1	2.7	2.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 실업률은 아랍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서, 중남미 국가 평균의 2배, 동아시아 국가 평균의 4배를 넘고 있음.<sup>6)</sup>
  - 전체 국가 평균 18% 수준
  - 일부 국가 (이집트, 시리아 등)의 경우 젊은층 인구의 50%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5) Diversifying MENA Economics to improve performance, OECD 2006

6) 전게서

- 석유 이외의 산업 기반 미흡, 유사한 산업 구조, 무역과 투자에서의 많은 제약 등으로 2002년 실적 기준으로 아랍 국가간 교역은 전체 교역의 7.1%에 불과함.<sup>7)</sup> (2005년 기준으로는 9%로 추정)<sup>8)</sup>
-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1985년에는 4.7%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비중 (4.2%)에 비해 높았으나, 2003년 말에는 동아시아 국가들 비중에 비해 1/4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전직하함.<sup>9)</sup>
- 세계 FDI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도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 FDI (6,600억불)의 2%에도 못 미치는 128억 달러에 그침.
  - GDP 대비 FDI가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도 동아시아 (3.6%), 중남미 (2.7%)에 훨씬 못 미치는 0.6%에 불과함.<sup>10)</sup>

## 나. 국제 경제질서에서의 참여 개황

- 아랍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범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역내 국가간의 경제 및 교역 관계 증진을 통한 성장 촉진,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BIT<sup>11)</sup> 혹은 무역투자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2005년 중반까지 아랍 국가들이 OECD 국가들과 체결한 BIT는 총 142개 이며, 지역 내·지역간 무역투자협정 체결 건수도 20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최근 WTO가입과 함께 역내외 국가와의 FTA 체결 등 개방적·포괄적 협정 체결도 경쟁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7) 전게서

8) Article; Not yet a two way street, Ghadeer Taher ; Jordan business 2006 5월

9) Article; The Impa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Region, Allen Denni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06.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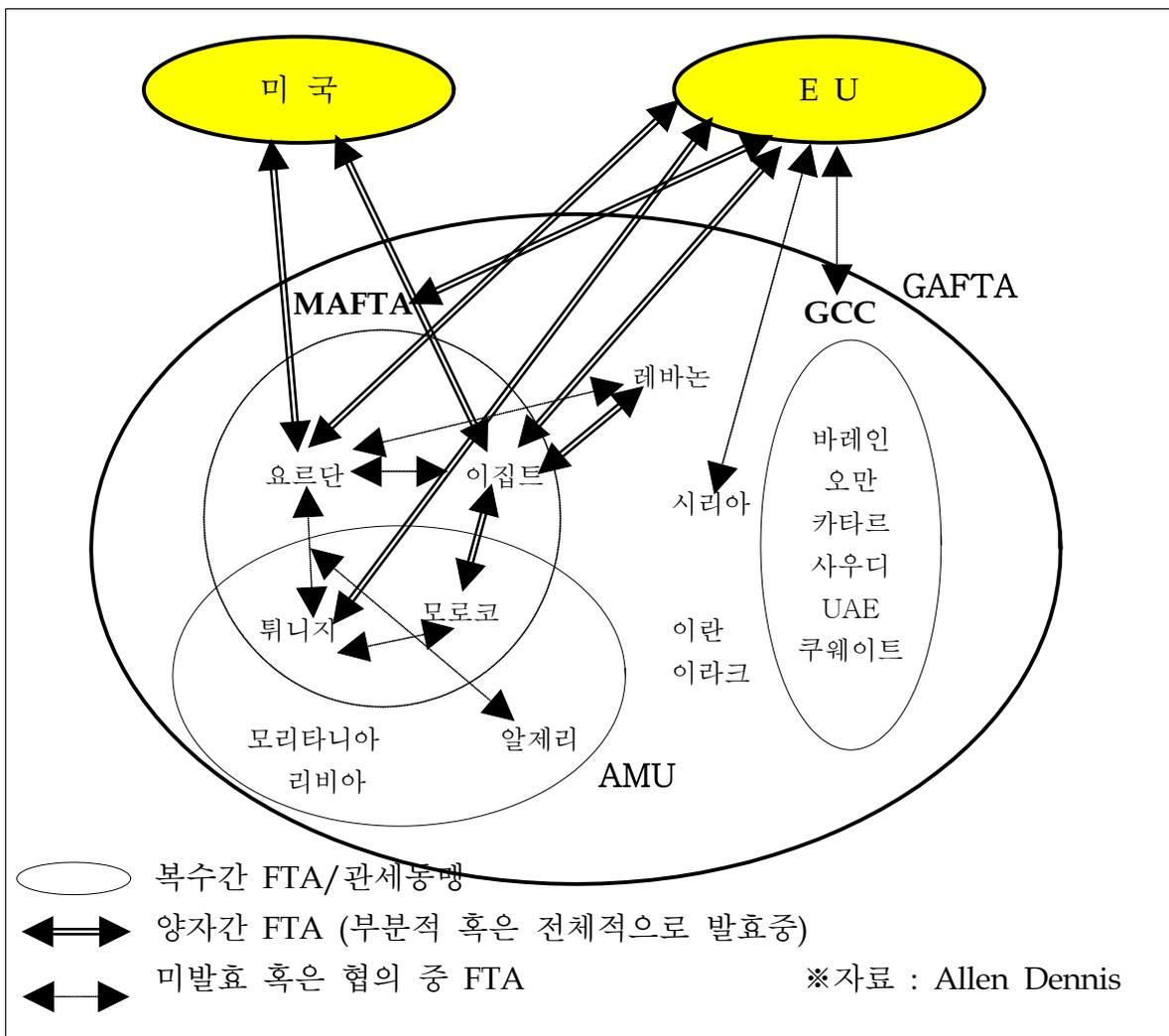
10) 세계투자보고서, UNCTAD 2005

11)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 2006년 기준 아랍 국가 중 WTO 가입국 및 옵저버 참가국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 )내는 가입년도)

1. 요르단 (2000)	2. UAE (1995)	3. 바레인 (1995)
4. 튀니지 (1995)	5. 사우디아라비아 (2005)	
6. 이라크 (2004, 옵저버)	7. 오만 (2000)	8. 카타르 (1996)
9. 쿠웨이트 (1995)	10. 레바논 (1999, 옵저버)	11. 이집트 (1995)
12. 모로코 (1995)	13. 알제리 (1987, 옵저버)	14. 지부티 (1995)

○ 한편, 2006년 기준, 아랍 국가들이 체결한 (혹은 체결 추진 중인) 역내 FTA 및 미국, EU와의 FTA 추진 개황을 개략적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 3. '아랍 통합'과 '경제 통합'

#### 가. '아랍 통합' 추이<sup>12)</sup>

- '아랍 통합'은 19세기 말 서구 식민지 시대 때부터 아랍 지식인들의 당위론적 목표로서 존재해 왔음.
  - 이러한 개념이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아랍 민족주의 운동과, 전후 파이잘 왕<sup>13)</sup>의 통일 아랍왕국 건설 노력,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민중 봉기 (1936년 및 1939년)<sup>14)</sup> 등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
-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중동지역을 지배하게 된 영국은 아랍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통일 아랍국 탄생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이어 이집트 주도 하에 범 아랍주의 운동이 태동을 하게 됨.
  - 운동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1945년 이집트의 후원 하에 아랍연맹이 창설됨.
  - 그러나, 이집트 주도의 통일 아랍 실현 노력은 요르단과 이라크, 시리아 등과의 주도권 쟁탈전 및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설립과 함께 실패로 귀결됨.
- 이후 1950년대 들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의 주도로 통일 아랍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재개됨.
  - 그러나, 아랍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했던 통일 아랍에 대한 논의는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이 참패함으로써 종식됨.
  -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통일아랍 목표 폐기로, 중동 국가들은 연이어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등 독자노선을 추구함.

12)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Ima M. Lapidus, Cambridge Press)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됨.

13) 제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영국이 이라크 등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위임통치 하게 되자 영국은 지역 내 폭동 발생을 무마하기위해 메카 하심가의 파이잘을 국왕으로 봉하고, 이라크 입헌군주국을 탄생시킴. 파이잘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수도를 둔 아랍 왕국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1932년 이라크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됨.

14) 유대인의 식민지재와 영국의 통치에 대항하여 일으킨 민중운동. 아랍지역 특히 이집트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등)의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랍 통합을 위한 민중운동으로 발전함.

## 나. 경제 통합으로의 길

### □ 경제 통합을 위한 첫 번째 시도

- 아랍 각국 간의 이견 대립과 대외 정치 환경 변화 등으로 통일 아랍의 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후, 아랍 지역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짐.
  - 이러한 노력은 20세기 후반이후 아랍 국가들도 세계화의 과정에 급속히 편입되어 나가면서 시장 개방과 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발전됨.
- 지역 내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아랍국가간 교역운송로 확보를 위한 공동기구 설립을 제안한 '1953년 협약 (1953 Treaty)'이 첫 번째 시도였으며, 이어 1964년에는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동시장을 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랍 공동 시장 (ACM ; Arab Common Market) 설립 구상이 뒤따랐음.
  - 당시 참여국은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모리타니아 등 5개국이었으며, 이후에 예멘이 참여함으로써 6개국으로 늘어남.
- 1970년에는 '아랍 내 투자 및 자본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nvestment and Free Movement of Arab Capital Among Arab Countries)'을 체결함.
- 1981년에는 아랍 연맹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랍 역내 교역 촉진 및 진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Facilitation and Promotion of Intra-Arab Trade)'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 아랍연맹 국가간 제조 및 반 제조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성공적인 지역 블록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며, 따라서 지역 내 무역자유화 협정 체결 및 협의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 통합을 위한 두 번째 시도

- 이상과 같은 첫 번째 시도가 모두 실패함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아랍 각국은 아랍 전체를 묶는 노력 보다는 인근 지역을 경제권역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
- 이러한 노력으로 탄생한 지역별 경제 통합체는 다음의 세 가지임.
  - 첫 번째는, 걸프 연안국들이 주축이 되어 1981년 창설한 ‘걸프협력위원회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로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함.



- 두 번째는,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예멘 등 4개국이 참여하여 1989년 창설한 ‘아랍 협력 위원회 (ACC ; Arab Cooperation Council)’이었으나 단명예 그침.

- 세 번째는, ACC 결성에 자극받아 마그레브 연안국들이 주축이 되어 1989년 창설한 '아랍 마그레브 동맹 (AMU ; Arab Maghreb Union)'으로서,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튀니지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함.



#### □ 1980년대 이후 정책 및 대외 환경 변화

-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랍의 통합을 둘러싼 좋지 않았던 역사로 인해 교역의 자유화와 경제 통합 등에 대한 유인책 마련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EU통합 등 대외 환경 요인의 변화와 함께 아랍권 국가간 경제관계 강화에 보다 진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함.
- 경제적으로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자국산업 보호정책 (걸프지역 제외) 을 도입하고,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수입관세 의존형 세입구조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소비세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경제력 확충과 지역 내 교역 증진을 동시에 추구함.
- 대외적으로는, EU, NAFTA, MERCOSUR 등 지역단위의 경제통합 협정 발효 및 성과의 창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아시아 신흥 경제국의 급부상 등은 역내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진함.

## □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

- '95년 WTO가 설립되면서 세계경제는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함께, FTA를 통한 지역간 협력이 새로운 경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됨.
- 아랍지역도 예외 없이 세계화의 물결에 편입되면서 시장경제 구축과 함께 시장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도 한층 심화, 확대해 나가게 됨.
  - 이러한 노력은 WTO 가입, 미국, EU 등 경제 강국들과의 FTA 체결, 기존의 역내간 협력 및 경제통합 협정의 확대·심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남.
- 1990년대 말 이후 경제 통합 분야에서 주요 진전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983년 이미 FTA 단계의 경제통합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GCC의 경우, 2004년에 역내 단일관세를 실현하였고, 이어 2007년까지 단일 시장 형성, 2010년까지 EU와 같이 단일 통화를 도입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1989년, EU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의 연합체로 출범한 AMU는 향후 1)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걸프경제권', 2)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경제권', 3) 'EU와 아프리카 경제권' 등 3개 권역을 잇는 교량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경제적 결속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임.
  -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논의되었던 범 지중해 자유무역협정 (MAFTA)<sup>15)</sup> 구상은 아랍권 내 4개국<sup>16)</sup>이 2004년 2월 15일 모로코에서 '아가디르 협정 (Agadir Agreement)'을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지역경제 통합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미발효)
- 이 같은 소규모 지역 경제통합체 설립과 심화·확대를 위한 노력은 1997년 아랍연맹 주도 하에 범 아랍자유무역지대 (GAFTA)를 출범시키는 기본 토대를 제공함.

15) Mediterranean Free Trade Agreement

16)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 4. 범 아랍자유무역지대 (GAFTA)<sup>17)</sup> 태동과 주요 내용

### 가. GAFTA의 태동

- GAFTA는 1950년대의 무역촉진 협약이 체결된데 이어 1960년대 ‘아랍 공동시장’ 설립 구상이 있던 후 거의 50년 이상을 허공에서 표류하다 1997년 2월 17일 아랍연맹 소속 17개국(협정문<sup>18)</sup>)에 서명함으로써 1998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음.
- 아랍연맹 회원국 중 모리타니아, 알제리, 소말리아, 코모로스 등 저개발 5개국은 협정문 서명에 불참함.
- 핵심 내용은, 2004년 말<sup>19)</sup>까지 농산물 일부를 제외한 전체 교역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임.
- 이에 따라 2006년 기준 GAFTA 서명국간 교역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GAFTA 발족으로, 아랍 권내 약 3억 2천만 명의 소비자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블록이 형성됨.
- GAFTA는 그동안 아랍연맹 회원국 간에 논의되었던 합의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법 체계 (Legal framework)는 다음과 같음.

- ① 아랍 역내 교역 촉진 및 발전을 위한 협정
- ② 아랍 자유무역 지대 이행 프로그램
- ③ 이행 위원회
- ④ 아랍 상품에 대한 세부 원산지 규정

17) Great Arab Free Trade Area.

18) Declaration on Pan-Arab Free Trade Area, Economic and Social Council's Resolution No.1317-O.S. 59 Dated February 19, 1997, League of Arab States, General Secretariat.

19) 당초 협정문에는 2007년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2008.1.1일부터 무관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이후 아랍연맹에서 무관세율 적용 일정을 2005.1.1일로 앞당겼음.

## 나. GAFTA의 기본 법체계

### ① 아랍 역내 교역 촉진 및 발전을 위한 협정 (The Agreement of Facilitating and Developing Intra-Arab Trade)

- 동 협정은 GAFTA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서, 1981년 합의이후 1983년부터 공식 발효되었음.
  - 협정 서명국간은 교역 시 관세 면제 등 무역자유화 기본 원칙 기술
  - 협정 비준국은 아랍연맹 22개국 중 알제리, 지부티, 코모로스를 제외한 19개국
- 이후, 1985년에서 1992년까지 무역협상 위원회를 통해 공산품에 대한 세부 교역 자유화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합의 도달에는 실패함.

### ② 아랍 자유무역지대 이행 프로그램 (The Executive Program for the Great Arab Free Trade Area)

- 동 프로그램은 아랍 역내 교역 촉진 및 발전을 위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98년 1월 1일부터 매년 10%씩 관세를 인하하여 2007.12.31일까지 무관세 실현<sup>20)</sup>
  - 회원국들 간에 상호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자유화 실천
  - 회원국별 원산지 규정은 아랍 공통 원산지 규정으로 전환
  - 교역 자유화 대상 품목에 대한 비관세 조치 금지
  - 보조금, 반덤핑 등 제 규정은 국제 규범 준수
  - 예멘과 수단 등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 조치

20) 2000년 암만에서 개최되었던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전체 일정을 2004.12.31일까지 단축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과 2005년에는 매년 20%씩 관세를 인하하게 됨.

### ③ 이행 위원회 (Implementation committees)

-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종 기술적인 사항 처리 및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음.
  - 협정 이행 위원회 (Implementation and Follow up Committee) : 협정문 이행 및 분쟁해결
  - 무역협상 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 비관세 장벽 제거
  - 원산지 규정 기술 위원회 (The Technical Committee for the Rules of Origin) : 범 아랍차원의 원산지 규정 개발 및 운영
- 회원국간 분쟁 발생시 해결이 어렵거나 혹은 조정·중재도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아랍 투자법정 (Arab Investment Court)’을 별도로 두며, 동 법정에서의 판결을 최종 판결로 인정함.

### ④ 세부 원산지 규정 (Detailed rules of origin for Arab commodities)

- 아랍 제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랍국가 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최종적 가치 (final Value)의 40%가 아랍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함 (공정, 부품사용 등)
  - 단, 조립품의 경우는 동 비율을 20%로 완화
  - 세부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규정 기술 위원회에서 제정

## 다. GAFTA 조문<sup>21)</sup> 내용

### ① 정의 (Definitions)

- 제 1조 : 본 협정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 대상 용어는 다음과 같음.

21) Agreement to Facilitate and Develop Trade Among Arab States, League of Arab States.

- 협정 (Agreement), 아랍 국가 (Arab States), 회원국 (Party States), 협의회 (Council), 관세 및 유사한 효과를 갖는 세금 (Customs Duties and Taxes of Similar Effect), 비관세 조치 (Non-Tariff Restrictions), 저개발 국가 (Less-developed States)

## ② 일반 조항 (General Provisions)

- 제 2조 : 자유 무역협정의 기본 원칙
  - 상품 교역과 관련한 장벽 축소, 점진적 관세 및 세금 인하
  - 교역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국가간 발전정도 고려
  -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이익과 책임의 공평한 분배
- 제 3조 - 제 5조 :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보편적인 원칙
  - 협정문 이외에 양자간, 다자간 협의를 통한 회원국들 모두가 무역을 통한 이익 증대 추구가 가능
  - 무역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아랍경제 통합에 기여
  - 제재조치 적용 제한 (연맹의 결정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 )

## ③ 실질 조항 (Substantive Provisions)

- 제 6조 : 관세 및 제세 면제, 비관세 장벽 철폐대상 품목
  - 소비용 농산물 및 동물성 제품 (일차 및 이차 가공품 포함)
  - 광석 및 비광석 (일차 및 이차 가공품 포함)
  - 협의회에서 승인한 반제품
  - 아랍 연맹 국가 내의 합작법인에서 생산된 제품
  - 협의회에서 승인한 완제품
    - \* 서비스 부문은 2003년부터 별도 자유화 추진 합의 농산물은 관세 면제 기간 별도 명시
- 제 7조 :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조치

- 제 8조 : 비 아랍권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반덤핑 조치, 아랍물품 우선 구매 등
- 제 9조 : 원산지 규정 (일반 제품 40%, 조립품 20%)과 함께, 원산지 요율의 점진적 인상 조치
- 제 10조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교역 지원

#### ④ 협정 이행 감독 (Supervision of Agreement Implementation)

- 제 11조 : 협의회 역할 (관세인하 및 면제 품목 결정, 저개발 국가 선정 등)
- 제 12조 : 사무국의 연차 보고서 제출의무

#### ⑤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

- 제 13조 : 분쟁처리 및 분쟁해결 위원회 운영

#### ⑥ 기타 조항 (Final Provisions)

- 제 14조 - 제 21조 : 협정 운용과 관련한 연관 조치
  - 생산 제품 재 추출
  -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대정부 지원 요청
  -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
  - 교역을 위한 운송 및 통신 인프라 확충 등
- 제 22조 - 25조 : 협정문 발효 및 개정
  - 서명 후 3개월 이후 발효, 협정 실행 후 3년 내 협정가입 철회 불가
  - 협정문의 수정은 회원국의 2/3 찬성으로 가능

## 5. GAFTA 발효 1년 후 주요국의 교역관계 변화 분석

### 가. 사우디아라비아

#### 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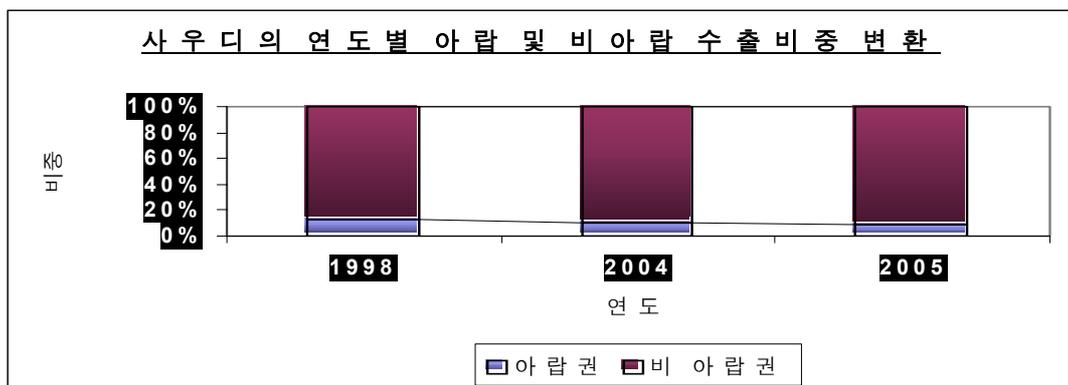
- 원유수출에 절대 의존도가 높으며, 2003년 이후 고유가 지속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연도	수출 (US\$백만)	전년(동기)비 증감률
1998	38,727	-36%
2004	112,578	+30%
2005	154,497	+37%

자료 : IMF

- 주 수출 대상국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아랍권으로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05년 10% 이하)

- '05년 기준 주요수출국은 미국, 일본, EU로서 전체의 50% 차지
- 5대 수출대상국별 수출실적 : 미국 263억불 (1위), 일본 260억불 (2위), EU 247억불 (3위), 한국 135억불 (4위), 중국 112억불 (5위)



자료 : IMF 자료 활용 무역관 자체 분석

- 원유 중심의 수출구조 상 GAFTA발효에 따른 영향과 변화는 타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② 수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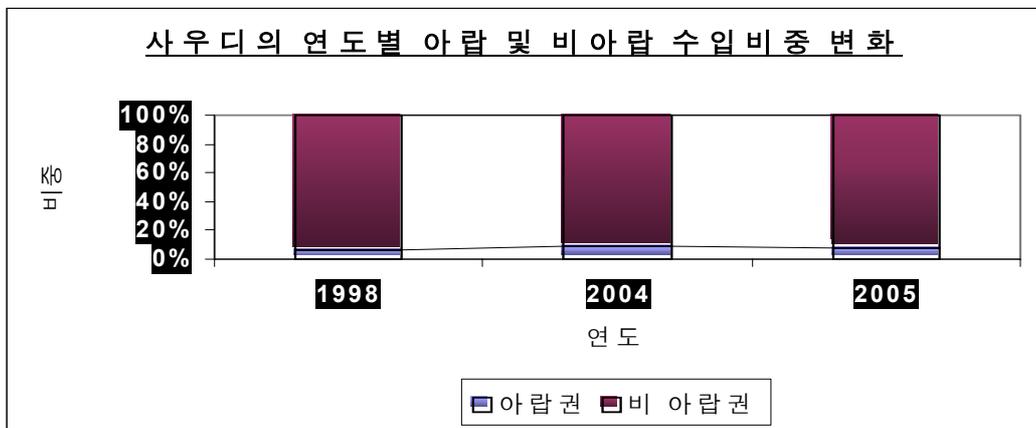
- '04년 다소 주춤하였던 수입은 '05년 들어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호황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기계류 수입이 급증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됨.

연도	수입 (US\$백만)	전년(동기)비 증감률
1998	30,012	+5%
2004	44,745	-17%
2005	56,832	+27%

자료 : IMF

- 주력 수입품과 GAFTA 국가의 수출품과 연관성이 적어 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랍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7-8%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GAFTA 발효와 수입증대간의 연관성이 낮고, 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



자료 : IMF 자료 활용 무역관 자체 분석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GAFTA 보다는 선진 경쟁국들과 중국 요인이 대한수입 증가 및 감소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③ 외국인 투자

- '01년 9.11 테러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후 2년간 사우디의 FDI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였음.
- '04년부터 테러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다양한 프로젝트 발주가 붐을 이루면서 외국인 투자가 회복되고 있음.

#### 대 사우디 연도별 외국인 투자 추이

구분	'00	'01	'02	'03	'04	'05	누계
프로젝트 건수	253	659	873	577	365	585	3,312
금액(US\$ 백만)	2,020.8	7,847.6	2,901.4	1,017.1	4,160	8,106.7	26,053
증감률	-	289.7	-63.03	-64.95	309.00	94.87	-

자료 : 사우디 투자청 SAGIA

-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36%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국이며, 이어 일본과 EU가 각각 17%, 12%로 2,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아랍권 국가들의 경우, UAE가 11%, 쿠웨이트가 3%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결국 GAFTA 발효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 사우디 국별 외국인투자 실적 (누계 기준)

(단위 : US\$ 백만)

순위	국별	프로젝트 수	FDI누계	비중 (%)
-	계	3,312	26,053	100.0
1	미국	265	9,424	36.17
2	일본	35	4,575	17.56
3	EU	425	3,178	12.20
4	UAE	85	3,114	11.95
5	쿠웨이트	101	843	3.24

자료 : 사우디 투자청 SAGIA

## 나. 요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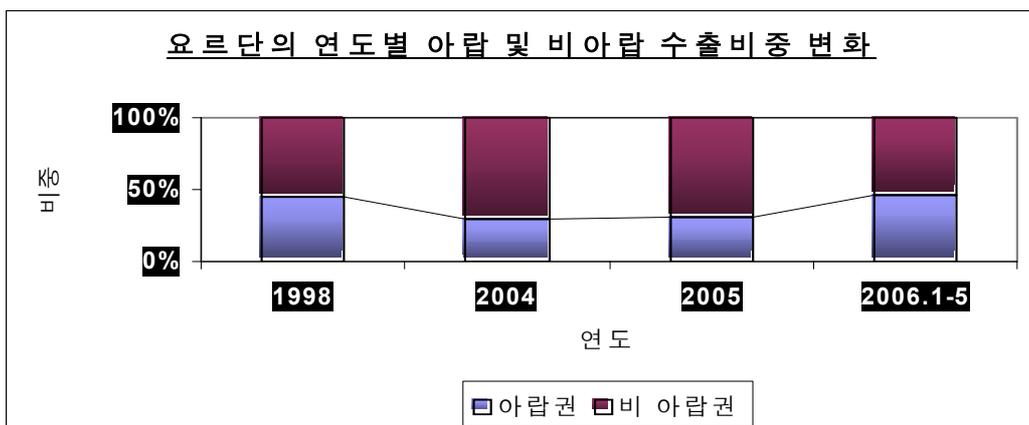
### ① 수출

- 2000년대 들어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연도	수출 (US\$백만)	전년(동기)비 증감률
1998	1,505	-2%
2004	3,253	+40%
2005	3,625	+11%
2006 (1-5월)	1,602	+14%

자료 : 요르단 통계청

- 특히, 2005년 GAFTA 발효 시점을 전후하여 아랍권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의 하나임.
  - 요르단의 수출 증가는 GAFTA 이외에 QIZ<sup>22)</sup> 지정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에 따른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1998년 QIZ 지정과 함께 대미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아랍권으로의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 GAFTA 발효를 즈음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998년 45% → '04년 30% → '06년 47%)



자료 : 요르단 통계청 자료 활용 무역관 자체 분석

22) Qualifying Industrial Zone의 약자로 대미 수출 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시켜주는 특별구역을 말함. 미국정부는 1998년 3월 요르단의 알 하산 산업단지를 최초 QIZ로 지정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이집트 에게도 QIZ 특혜를 부여하였음. 요르단의 경우 QIZ 지정 이후 2001년부터 미국이 최대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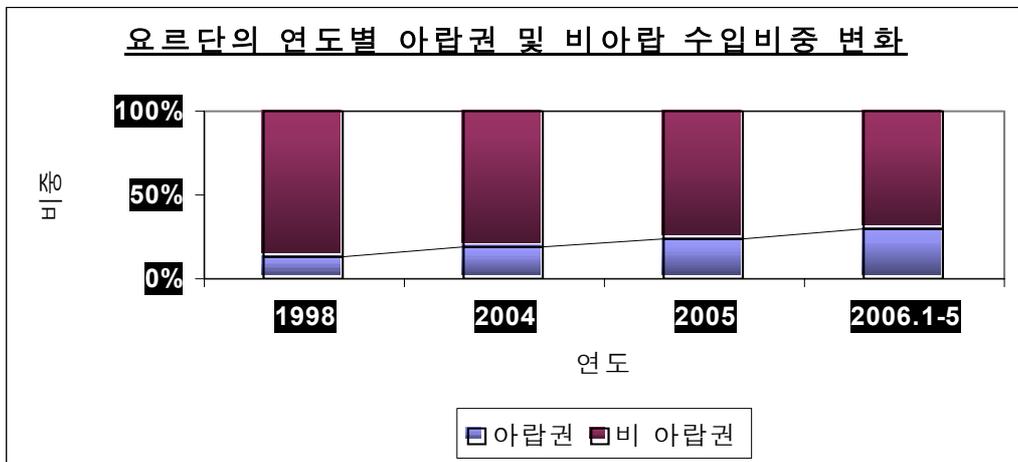
## ② 수 입

- 연 5%이상의 경제 성장지속 지속 및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2000년대 들어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	수입 (US\$백만)	전년(동기)비 증감률
1998	3,828	-7%
2004	8,179	+42%
2005	10,496	+28%
2006 (1-5월)	4,635	+17%

자료 : 요르단 통계청

- 아랍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1998년 13.6%에서 2006년 5월말 기준 30%로 급증, 대 아랍 수입 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수입 증대의 많은 부분 (전체 수입의 16%)은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수입과 관련되고 있으나, 교역 관계 측면에서 아랍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자료 : 요르단 통계청 자료 활용 무역관 자체 분석

-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GAFTA 발효와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04년+79% → '05년 +46% → '06.1-5월 +17%)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자동차, 통신, 전자 등 GAFTA로 무역전환이 어려운 품목이라는 점에서 단기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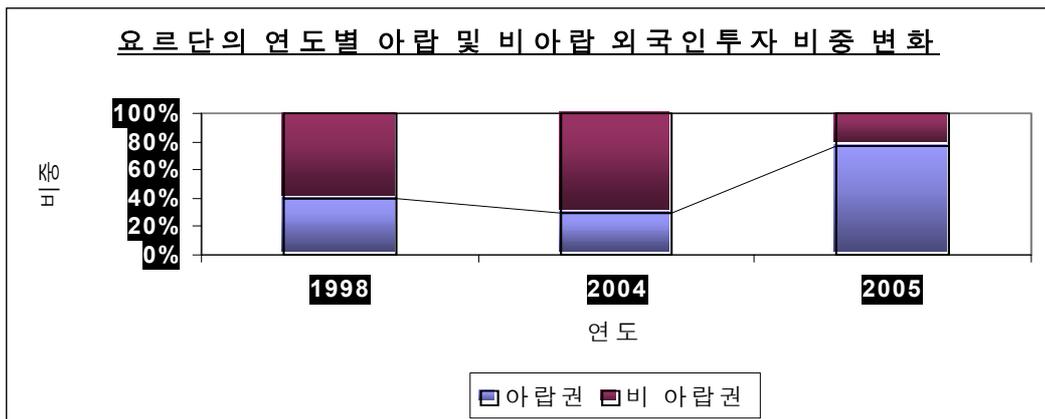
### ③ 외국인 투자

- 중동의 안전지대로서 요르단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대 요르단 외국인 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5년에는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
  - 유가 상승 기조 하 Gulf 자금의 대거 유입 및 이라크전 이후 이라크 비즈니스맨들의 요르단 이주 증가 등이 주요인

연도	외국인 투자 (US\$백만)	전년(동기)비 증감률
1998	219	+80%
2004	135	+17%
2005	389	+188%

자료 : 요르단 투자청

- 이에 따라, 과거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외국인 투자의 패턴도 아랍권 국가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 1998년 39.7%에 불과하던 아랍권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2005년에는 77%로 급증함.



- 지역적 근거리, 문화적 동질성, ‘안전 지대’로서 요르단에 대한 인식 증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아랍권 국가들의 강세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 이집트

통계 확보의 제약으로 GAFTA와의 교역 Flow의 변화에 대해서만 살펴봄.<sup>23)</sup>

- 이집트와 GAFTA 국가들 간의 교역은 지난 '04년 35%가 증가한데 이어, '05년 9월말까지 전년 연간 실적 대비 46%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GAFTA 회원국과의 교역 총액 추이 : 16억불 ('03) → 22억불 ('04) → 32억불 ('05.1-9월)
- 수출은 '04년 중 30% 이상 증가하여 총 수출대비 GAFTA 비중이 전년도 15.9%보다 소폭 증가한 16.7%를 기록함.
  - '05년 9월말 기준, 전년 연간 실적 (13억불) 대비 9%가 증가한 14억불을 기록, 동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04년 중 GAFTA로부터의 수입은 수출보다 더욱 늘어난 45%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GAFTA 회원국들의 비중은 전년도 5.8%에서 7.1%로 증가함.
  - '05년 9월말 기준, GAFTA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연간 실적 대비 배 이상 증가한 18억불 기록

### 이집트의 대 GAFTA 교역 비중 변화

	총 교역	수출	수입
2003년	9.5%	15.9%	5.8%
2004년	10.7%	16.7%	7.1%

- 이집트의 라시드 (Mr. Rashid) 통상산업부 장관은, 최근 Jordan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의 대 GAFTA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GAFTA를 통해 이집트 경제가 시장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23) Regional Integration Arrangements (Delegation of EU in Egypt, 2006.5월) 참조

## 라. UAE

통계 확보의 제약으로 이하에서는 전체 교역 Trend에 대해서만 살펴봄.<sup>24)</sup>

- 2003년 이후 세계적인 고유가 지속과 경기 호황을 바탕으로 수출과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수출 및 증감률

연도	금액 (US\$백만)	전년(동기)비 증감률
1998	25,813	-17%
2004	67,002	+34%
2005	89,336	+33%

자료 : IMF

### 연도별 수입 및 증감률

연도	금액 (US\$백만)	전년(동기)비 증감률
1998	24,728	+7%
2004	74,387	+91%
2005	97,432	+30%

자료 : IMF

- 수출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EU, 일본 등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과의 교역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수출 : '04년 기준, 대일본, 대대만 수출이 각각 256억불, 156억불로 전체의 31%, 19%를 차지 (대부분 원유)
  - 수입 : '04년 기준, EU로 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33%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평균 7% 수준을 유지 (기계류, 자동차 등이 주류)
- 통계상의 제약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평가할 때 UAE의 경우도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GAFTA 발효에 따른 교역상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4)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참조

## 6. GAFTA 발효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 가. 총괄 평가

- GAFTA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4개국의 예를 통해 살펴볼 때 GAFTA의 발효에 따른 효과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남.
- 먼저, 사우디, UAE 등 걸프 국가들의 경우는 GAFTA의 본격 발효에도 불구하고 교역 면에서 기존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아랍 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높은 원유 수출 의존도, GAFTA 회원국 내로의 수입선 전환이 어려운 자동차와 기계류 등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 등이 주요인으로 평가
- 이에 비해, 요르단과 이집트 등 아랍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 국가들의 경우는 걸프국가들과는 달리 GAFTA와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아랍 통합을 주창해 왔던 국가들이라는 점과,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 성장을 위한 걸프지역 자금 유입 확대 노력 등이 주요인으로 평가
- 요르단, 이집트 등의 대 아랍권 교역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주력 수입품 (기계류, 자동차 등) 등이 GAFTA 회원국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GAFTA 본격 발효에 따른 단기간 내 무역 전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GAFTA 본격 발효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 지속 증가
- 그러나, GAFTA는 지난 50년간 표류해 왔던 경제 통합의 구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아랍국들 간에도 실효성 있는 통합체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힘을 받아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대 아랍 교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나. 한계와 전망

### ① 한계와 풀어야 할 숙제들

- GAFTA는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체 아랍권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단계적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원산지 규정에 의한 무관세 적용과 세관행정의 효율화, 아랍인으로서 정체성 확보에의 기여 및 역내 기업인들의 활력 증진 유발 등 유·무형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GAFTA는 협정문 자체의 한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먼저, 협정문 자체의 문제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음.<sup>25)</sup>
  - 아랍 전체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농산물이 관세 인하 및 감축계획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음.
  - 협정문은 또, 아랍 전체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도 사실상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 결과, 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통신 및 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이 어려움.
  - 이행 시기 및 관세감축 품목 선정에 대한 예외를 무수히 많이 인정하고 있음.

#### ☞ (참고) 농산물 관세면제 적시 사례 예시

- 이집트산 다음의 농산물은 적시된 기간 동안 관세 및 제세부과가 면제되며, 단, 적시된 기간 동안 레바논으로의 수출은 금지됨.

감자	2.1일부터 3.31일까지
양파 마늘	12월 1일부터 차년도 4월 .30일까지
멜론	1.1일부터 5.1일까지

25) The Great Arab Free Trade Area, NBE-Economic Bulletin Vol. 58 No.1

- 이외에 GAFTA의 이행 및 효력 발휘를 제약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sup>26)</sup>
  - 아랍 경제 협력 기구 설립을 둘러싼 좋지 않은 전통과 국가간의 앙금
  - 철도 및 운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
  - 보이지 않는 세관 행정 규제 및 역내의 높은 내륙/해운 운송비
  - 표준 등을 둘러싼 기술적 규제, 위생 관련 규제
  - 외환 거래의 불투명성 및 수출입 승인제 등
  - 농산물 교역에서의 과도한 규제와 일부 국가들의 수입금지 조치
  - 석유 및 동 파생상품 (아랍 수출액의 70% 차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교역구조와 국내의 취약한 산업생산 구조
  - 유럽 및 미국에 대한 지나친 교역 의존도
  - 산업의 동질성으로 인해 상호간의 교역 확대 가능 분야 제한
  - 아랍각국이 체결하고 있는 타 협정 (미국와의 FTA, EU와의 특혜무역 협정, QIZ 협정 등)과의 상호 모순 시 조정·조율 문제
  
- GAFTA 본격 발효 1년 반을 지난 시점에 요르단의 Zubi 통상산업부 장관은 Jordan Business (월간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GAFTA의 성과와 상존하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음.<sup>27)</sup>
  - 2005년 기준 수출의 40%, 수입의 30%가 아랍 국가들이 차지하는 등 GAFTA 체결 이후 요르단 교역에서 아랍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1) 국경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2) 운송도 매우 복잡하며, 3) 표준 등에서의 기술장벽과 모호한 규정들, 4)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협정의 잠재적인 이익이 크게 반감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아랍 지역 내에서 끊이지 않는 혼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문제 등)과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 등도 성과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들임.

---

26) 전계서

27) Jordan Business 2006.5월호.

## ② 향후 전망과 과제

- 1998년 발효 이후 2005년 1월 1일부 공산품 교역에 대한 전면적 관세 면제 조치로 인해 그동안 아랍 국가간 교역이 크게 활성화 되고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GAFTA가 만들어낸 고무적인 현상의 하나임.
- GAFTA 회원국들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산품 무역장벽의 지속적인 축소와 함께, 서비스, 농산물 등의 분야로 까지 교역자유화 및 경제 통합 수준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아랍 단일경제 통합 협의회 (Council of Arab Economic Unity)의 Ahmad Goueli 사무총장은, GAFTA를 통해 상품교역 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부 국가들 (레바논, 시리아 등)의 농산물 수입 규제를 줄여 나가는데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혀, 서비스와 농산물 교역 자유화 확대가 향후 GAFTA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임을 시사함.<sup>28)</sup>
- 그러나, 이같은 자유화와 통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AFTA 국가들의 성숙되지 못한 수출 제조업 기반<sup>29)</sup>과 높은 실업률, 국영기업에 의한 무역 독점현상<sup>30)</sup>,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인책 미흡<sup>31)</sup>, 원자재 중심의 한정된 교역품목 구조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됨.
- GAFTA가 아랍권을 묶는 명실상부한 지역 경제통합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경제통합체 운영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차원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28) Jordan Business, 2006년 5월호

29) 총수출에서 제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81%, 미국 등 OECD국가가 90%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에 아랍 국가들 평균 17%에 불과함.

30) 쿠웨이트의 경우 전체 고용의 94%가 공공부문에서 창출될 정도로 공공부문 집중도가 심하여, 이같은 공공부문의 시장 참여는 결국 민간의 참여를 제약시킴으로써 (구조효과) 실물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31) UN의 외국인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국가들의 GDP 대비 FDI비중은 세계 최저 수준임. (아랍 0.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4%, 중남미 2.7%, 동아시아 국 3.6%)

## 7. 예상되는 영향과 대응책

### ① 관세율 격차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

- GAFTA가 경제 통합체로서 아직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로 역내국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GAFTA 이외에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많은 경쟁국들이 아랍국가들로부터 관세 혜택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우리의 대 아랍국 수출시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아랍권 내 대표적인 개방국가의 하나인 요르단을 예로 들자면, GAFTA를 포함한 각종 FTA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에 미치는 관세 상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음.
  - GAFTA 회원국 : GAFTA에 의거, 2005.1.1.일부 무관세
  - 미국 : 요르단-미국간 FTA 협정에 따라 2010년까지 매년 3% 관세인하 (2010년 0%)
  - EU : 요르단-EU간 특혜무역 협정에 따라 2006.5.1일부터 매년 11%씩 관세 인하 (2014년 0%)
  - EFTA : 요르단-EFTA간 FTA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 (2002.1.1) 기준 7년 후부터 매년 관세를 인하하여 2014년까지 영세율 실현
  - 싱가포르 : 요르단-싱가포르 FTA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 (2004.5.16) 기준 6년 후부터 5년간 매년 동률 관세인하 (2014년 0%)
- 이에 비해, 요르단과 특별한 협정 체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WTO 양허세율 (25%)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관세율 격차가 향후 우리의 대 아랍권 수출의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 아랍권 FTA 혹은 특혜무역협정 체결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 요르단의 WTO 가입 이행서에 따라 2010년에는 25%에서 20%로 인하

- 참고로, GAFTA 등 각종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요르단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율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연도/국가	WTO 양허세율	미국	EU	EFTA	싱가포르	GAFTA	한국
2000	30%	30%	30%	30%	30%	30%	30%
01	30%	27%	30%	30%	30%	30%	30%
02	30%	24%	30%	30%	30%	30%	30%
03	30%	21%	30%	30%	30%	30%	30%
04	30%	18%	30%	30%	30%	30%	30%
05	25%	15%	25%	25%	25%	0%	25%
06	25%	12%	22.5%	25%	25%	0%	25%
07	25%	9%	20.25%	25%	25%	0%	25%
08	25%	6%	18.23%	25%	25%	0%	25%
09	25%	3%	16.40%	15%	25%	0%	25%
10	20%	0%	14.76%	7.50%	20%	0%	20%
11	20%	0%	13.29%	3%	15%	0%	20%
12	20%	0%	11.96%	0.90%	10%	0%	20%
13	20%	0%	10.76%	0.18%	5%	0%	20%
14	20%	0%	0%	0%	0%	0%	20%

자료 : 요르단 관세청 자료를 활용한 무역관 자체 추계치

- 이외에, 건설장비 부품인 유압브레이크의 관세율 변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연도/국가	WTO 양허세율	미국	EU	EFTA	싱가포르	GAFTA	한국
2000	20%	20%	20%	20%	20%	20%	20%
01	20%	17% 1)	20%	20%	20%	20%	20%
02	20%	14%	20%	20%	20%	20%	20%
03	20%	11%	20%	20%	20%	20%	20%
04	20%	8%	20%	20%	20%	20%	20%
05	20%	5%	20%	20%	20%	0% 5)	20%
06	20%	2%	18% 2)	20%	20%	0%	20%
07	20%	0%	16.25%	20%	20%	0%	20%
08	20%	0%	14.58%	20%	20%	0%	20%
09	20%	0%	13.12%	16% 3)	20%	0%	20%
10	20%	0%	11.81%	9.60%	15% 4)	0%	20%
11	20%	0%	10.63%	3.84%	10%	0%	20%
12	20%	0%	9.56%	0.77%	5%	0%	20%
13	20%	0%	8.60%	0%	0%	0%	20%
14	20%	0%	0%	0%	0%	0%	20%

자료 : 상동

## ② 무역전환 효과 확대 경계와 적극적 대처

- 아랍권 경제통합이 궁극적으로는 WTO 질서 내에서 세계 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 촉진을 기치로 내걸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역전환 효과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것이 사실임.
- GAFTA가 점차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게 될 경우, 역외국과의 관세율 격차에 의한 수입선 전환이 확대 가능함.
  - 이는 GAFTA 체결 이후 무역의 양적 확대 (무역 창출 효과)와 함께 아랍권과의 교역 비중 증가 (무역전환 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실증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도 잘 뒷받침.

☞ 요르단의 경우 예시

연도/구분	수입 증가율	총수입 대비 아랍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1998	-6.7%	13.6%
2004	+42.4%	18.9%
2005	+28.3%	24.0%
2006.1-5월	+16.8%	30.0%

- 또한, 아랍 국가들의 비석유 부문 제조업 미 발전으로 비석유 부문의 총 수출 규모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각국이 Post 석유시대를 대비하여 경쟁적으로 산업육성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선 전환 규모와 그에 따른 영향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GAFTA 회원국들 대부분이 EU 및 미국과의 특별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 전환의 영역이 아랍 뿐 아니라 EU, 미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랍권 혹은 특혜관계 국가들에 대한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참여 전략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③ 통합체의 질적 양적 · 확대에 대비

- GAFTA 발효는 아랍국가들로 하여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방형 통상 국가로의 진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1998년 GAFTA 발효 이후, WTO 가입, 역외국과의 FTA 체결 혹은 포괄적特惠무역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체결 등이 큰 폭으로 증가

#### GAFTA 이후 주요 아랍국가들의 FTA 및特惠무역협정 체결(추진) 현황

국가(기구)	대상국	체결 연도	비고
이집트	미국	-	-FTA 협상 중
GCC	터키	-	-FTA 협상 중
	EU	-	-FTA 협상 중
요르단	EU	2002	-Association Agreement
	싱가포르	2004	-FTA
	미국	2000	-FTA
바레인	미국	2004	-FTA
오만	미국	2005	-FTA
모로코	미국	2004	-FTA
알제리	EU	2002	-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EU	1998	-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EU	2000	-Association Agreement

자료 : Inventor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concluded by MENA Countries, OECD 2006

- 특히, 미국은 대중동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13년까지 중동 자유무역 지대 (MEFTA ; Middle East Free Trade Area)를 결성하기 위해 6단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EU도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Agreements 체결과 GCC와의 FTA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어, 향후 GAFTA는 미국과 EU를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큼.
- 이같은 GAFTA의 질적 · 양적 확대에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플랜트 수주 중심의 대 중동 시장진출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끝>

##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기획조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신4P 전략으로	2006.6
06-040	한-EU FTA 추진 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 □ 무공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중국 중서부지역 환경시장을 일군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 □ 산업리포트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호	제 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작성자

◆ 암만 무역관	권중헌 관장
◆ 리야드 무역관	권용석 관장
◆ 두바이 무역관	이영희 과장
◆ 해외조사팀	장윤성 대리

##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발행인 : 흥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8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